



정혜엘리사벳
 ST. JEONG-HAE ELIZABETH KOREAN CATHOLIC CHURCH
<http://www.sackcc.net>

주임신부: 김한모. 바오로 916-207-4806
 본당부제: 김병준. 바오로 217-352-2487
 본당부제: 김상돈. 도미닉 916-580-8519
 사목회장: 송돈희. 요셉 916-201-9859
 연령회장: 고원석. 바오로 916-813-4440

ST. JEONG-HAE ELIZABETH KOREAN CATHOLIC CHURCH 9354 Kiefer Blvd. Sacramento, CA 95826

사무실: 916-368-9204 Fax: 916-368-8304

오늘의 말씀 | 제1독서 | 사무엘상권 26:2.7-9. 12-13. 22-23 | 제2독서 | 코린도1 15:45-49 | 복음 | 루카 6:17-38

◎말씀 <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

지난주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꾸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영성생활의 내공을 길러 성인이 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잘해 주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에게 축복하며, 너희를 학대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네 뺨을 때리는 자에게 다른 뺨을 내밀고, 네 걸옷을 가져가는 자는 속옷도 가져가게 내버려 두어라. 달라고 하면 누구에게나 주고, 네 것을 가져가는 이에게서 되찾으려고 하지 마라. 남이 너희에게 해 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 주어라.” (루가 6.27-31)

그리고 “남을 심판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심판받지 않을 것이다. 남을 단죄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단죄받지 않을 것이다. 용서하여라. 그러면 너희도 용서받을 것이다. 주어라. 그러면 너희도 받을 것이다.” (루가6.37-39)라고 명하십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는 아담과 하와나 카인, 요나보다 더 작은 죄를 짓거나 덜 짓지도 않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가 바란대로 하느님이 벌하시고, 인간적인 세상의 처벌을

받게 했다면 우리 중 어느 한 사람도 이 세상에서 제대로 살아 갈 수도 없었을 것이고. 남아 있을 지체도 없었을 것입니다. 벌써 이 세상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주님은 용서 청하기를 기다리고 계셨고, 용서를 청할 때 마다 죄의 경중에 관계없이 모두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그분의 자비심 때문에 우리가 멀쩡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미워하고 원수처럼 여기는 사람, 나를 학대하는 사람, 나를 비난하고 단죄하는 사람, 이들 모두가 죄를 지어도 하느님에게 있어서는 사랑받는 자녀로 회개해야 할 대상이고 자비를 베풀어 당신께로 돌아오게 만들어야 할 사람인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 모두가 하느님께서 숨을 불어 넣어 만든 당신을 닮은 자녀가 되었고, 세례를 받아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신앙인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천국을 얻었다면, 다른 사람들도 용서받고 천국을 갈 수 있게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느님이 우리 마음속에 불어넣어 주신 당신 자비의 마음을 실행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림을 받은 신앙인들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는 명을 죽을 때까지 노력하고 노력해야 할 자비와 사랑의 계명인 것입니다.

일 자	전 려 력	미사시간	우리들 정성(지난주)	
2월26일(화)	연중 제7주간 화요일	오후7시30분	교무금 주일헌금	\$ 1,905.00 \$ 896.00
2월27일(수)	연중 제7주간 수요일	미사없음	미사예물 성소후원	\$ 170.00 \$ 148.00
2월28일(목)	연중 제7주간 목요일	오후7시30분	사회복지 성물방	\$ 103.00 \$ 34.00
3월 1일(금)	연중 제7주간 금요일	미사없음	기타수입 주일학교	\$ 0.00 \$ 0.00
3월 2일(토)	연중 제7주간 토요일	오전 10시30분 (성모신심미사)	사제관건축 합 계	\$ 200.00 \$ 3,456.00
3월 3일(일)	연중 제8주일	오전 9시 오전 11시	미사참례자	아동: 19명 성인: 182명
교무금 봉헌자	이민석(10-12월)이종만(3-4월)손창식(1-4월)이서향(2-3월)정규선. 최재진(1-2월)최중구. 윤재경. 우순이 김창영. 금외주. 신영후. 현익균. 박병수. 김평옥. 박을생. 지복원. 김길록. 이원건(2월)			

◎신앙생활(본당의 새신;본당은 친교의 집.기도하는집.동네의 샘입니다)

자녀에게 어떻게 신앙을 가르쳐야 하나요?

우리는 항상 신앙에 대해서 많은 생각과 함께 많은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자녀들에게 어떻게 신앙의 아름다움을 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도 큰 고민이고 많은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신앙에 관해 얘기하는 것은 때로는 많이 어렵습니다. 따분하지 않게 평범하지 않게 그리고 권위적이지 않게 말하려면 과연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또 어떤 단어들을 사용해야 할까요? 우리 아이들 에게 어떻게 말하고 가르쳐야 그 뜻을 잘 받아들이고 가슴에 새기게 될까요?

이 물음에 대해서 지난 2017년 4월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 하셨습니다.

‘신앙이 우리를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지를 자녀들에게 보여주세요. 우리 주위의 많은 비극적인 일들을 대할 때 그저 낙관하는 자세가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대한다는 것 이것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증언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바람은 말들을 사라지게 하지만 마음의 기억에 새겨진 말들은 영원히 남아있다. "

많은 가족들이 무엇인가를 함께 하는 아름다운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사에도 함께 가고

미사가 끝나면 자녀들과 함께 공원에 가서 시간을 보냅니다. 이렇게 신앙으로 한 가족이 다른 가족과도 함께 할 수 있게 됩니다. 내 친구 그리고 가족의 친구들과 함께 말입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일이며 주님의 날을 거룩하게 보낼 수 있게 해 줍니다.

오늘날 부모들은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없고 그들과 시간을 보내는 습관을 잃어 버렸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아침에 출근할 때 아이들은 자고 있어요. 저녁 늦게 퇴근하면 아이들은 벌써 자고 있고 쉬는 날에나 아이들을 볼 수 있습니다.

꿈쩍 하지요? 이것은 인간성을 앗아가는 삶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기억하세요. 아이들과 놀아 주세요.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세요. 자녀들과 함께 하는 것이 신앙을 전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세요.

- ◎주님 은총으로 용기와 치유받기를 청합니다. 윤안나/원정은.카타리나/백정심.막달레나 전기례.베레나/김나미.로사/김옥륜.세실리아 추소연.세실리아/엄안드레아/김숙자.수산나 서향자.글라라/김초지.마리아/황순이.마리아 최이주.베아따/이규청.제노비아/엄모니카 신용경.그레고리오/배미성.오틀리아/이강덕시몬 박모란.글라라/김광진.요한/원헤리나.헬레나 고공자.벨라뎃다

◎기도부탁하실때 구역장을 통해서 해주세요

◎오늘의 미사지향(미사신청;박울리아.916990-6531/박프란치스코.909-573-5322)◎

구분	지 향	봉 헌 자	구분	지 향	봉 헌 자
생	본당의 일치와 화합을 위하여	송돈희.요셉			

간 장 중 지	<p>◎나비◎ 따뜻한 남쪽나라를 향하여 ‘모나크’ 라는 나비들은 수천Km를 비행하곤 한다. 그러나 이듬해까지 살아남은 나비는 한 마리도 없다. 모두 새로 태어난 나비들뿐이다 도대체 나비들은 무엇을 찾아서 그렇게 죽음을 무릅쓰고 비행하는 것일까 아마도 생명, 하느님을 찾아서이리라.</p>	강은교 클라라.시인
------------------	--	------------

(광고) 본당의 쇄신;본당은 친교의 집.기도하는 집.동네의 샘입니다.

주보제작;박봉준.프란치스코 살레시오(909- 573-5322) E-Mail:bongjun5322@gmail.com

<p>Samurai Sushi 12251 Folsom Blvd. Rancho Cordova,CA95742 신영후(토마스) (916) 353-1112 samuraisushisac.com</p>	<p>Bradshaw Optometry 3557 Bradshaw Rd. #2E Sacramento, CA 95827 김기상(바오로) (916)361-2020 (916)361-0433; fax</p>	<p>1.2.3 Auto Body정비 11357 Pyrites Way Suite B1, Rancho Cordova CA 95670 이호영(호영베드로) (916)366-0123</p>	<p>2019년 8월 25일 출발 요르단+이스라엘 성지순례  SHINSEGAE TRAVEL ☎ 510-688-0155</p>
<p>FARMERS 배정순 종합보험 사업/상해/자동차/집/ 건강/생명보험/연금 9545 Folsom Blvd # 1 Sacramento,CA 95827 (916)362-3300 (916)475-3770;cell</p>	<p>에어컨 수리 Air Conditioner Service & Repair 배용환(율리아노) (916)548-3278 (916)362-3300</p>	<p>SNOW WHITE DENTAL 6416 Tupelo Dr.Cirtus Heights,CA 95621 장원석(바오로) (916)729-1441 (916)230-6768; 한국어</p>	<p>클라라 가정양로원 (Clara Care Home) 4665 Freeway Cir. Sacramento, CA 95841 김재열(스테파노) 김옥기(클라라) (530)771-7715 204-8878</p>
<p>서은미 부동산 RealtyOneGroup 2335 American River Dr. Ste.100 Sacramento, CA 95825 서은미(안나) (916)600-1936</p>	<p>Hair Story Salon 9723 Folsom Blvd. #B Sacramento,CA 95827 헤어디자이너 정린(클라라) (916)342-7072</p>	<p>메리서 부동산 · 용자 · 재정서비스 · 주택/상가/상업/부동산관리 및 자문 · 주택용자/SBA/Commercial/Land · 은퇴-자산-재무설계/재산관리 서주연(마리아) (916)271-3671 · maryseo@gmail.com SACRAMENTO . DUBLIN .LA K-TOWN</p>	
<p>JIMMY KIM GOLF SCHOOL ~Sunrise Golf Course~ 6412 Sunrise Blvd. Citrus Heights CA 95610 Jimmy Kim(안토니오) (916)605-6974</p>	<p>최병엽공인회계사 Byungyeub Choi CPA & Associates Inc. 9521Folsom Blvd.suit P Sacramento,CA 95827 (Butterfield Plaza#P) 최병엽(바오로) (916)363-2345</p>	<p>장의사 W.F.Gormley&Sons Funeral Home Family Owned Since 1897 Preneed Services Available (916)443-6513 www.gormleyandsons.com 모든 장례예절 성실히 봉사</p>	

